

## 2011년도 정기총회 개최

우리협회에서는 정관에 따라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일시 : 2011. 2. 25. 14:00~15:00
- 장소 : 산림조합중앙회 충청남도지회 대회의실
- 참석자

1. 산림청장 외 9명
2. 회원 : 134명 (위임자 17명 포함)

- 주요 회의 내용

### 1. 보고사항

가. 감사보고(공희성 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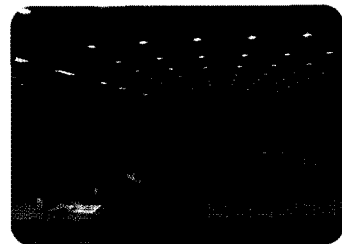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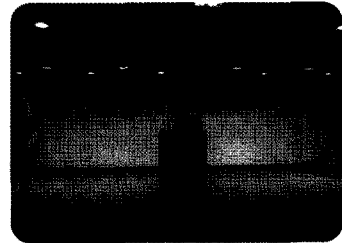
나. 2010년도 업무보고(김준기 전무)

- 회의개최사항
- 주요사업실적
- 주요행사 개최 실적
- 대정부 건의사항 관철 현황
  - 맞춤형 경영 지원 사업시행(25명 980,762천원)
  - 모델 숲 조성 사업시행 (5명 1,920,000천원)
  -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20% 감면)
  - 정책자금(임도자금) 용자기간연장(10/10 → 20/15)
- 해외 연수국 변경 및 연수인원 확대 (독일 → 인도네시아. 16명)
- 신규회원 가입실적(25명)
- 기금적리 (1,000만원)

### 2. 의결사항

가. 의안 제1호 : 2011년도 결산(일반 및 국비)

- 수입 지출
- 회비 및 찬조금 징수실적



나. 의안 제 2호 : 2011년도 업무계획

- 산림경영지 발간: 연간 4회 회당 80면 1,000부
- 전국산림경영인 하계연찬회 개최 (250명)  
개최지 : 충남도 공주시  
일 시 : 6월 16,17(1박2일)
- 산림경영모델학교운영(기당 90명)  
1기 (강원도. 8월 25,26일)  
2기 (전북도. 12월 15,16일)

다. 의안 제 3호 : 2011년도 수입 지출 예산(21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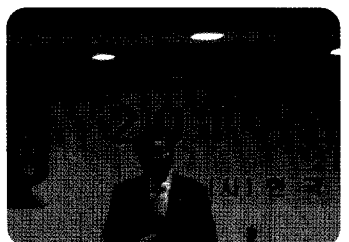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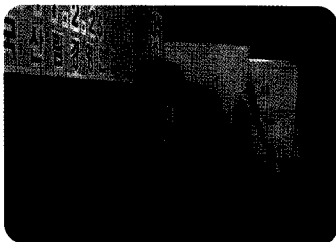
라. 수정발의의결 : 정책자금 집행 방법수정

반납액 발생 예방-9월말한집행불가시 포기(타회원기회부여)

## 제 18대 회장 선출

우리협회에서는 정관 제 10조 와 회장선출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제 18대 회장을 선출 하였습니다.

- 일 시 : 2011. 2. 25. 15:30~16:30
- 장 소 : 산림조합중앙회 충청남도지회 대회의실
- 선거인수 : 172명(회비완납회원)
- 투표인수 : 117명
- 입후보자 : 2명
- 당 선 자 : 하문섭



# '2011년 나라꽃 무궁화 축제' 개최지 공모

- 2월11일까지 신청받아 2월말 선정...3~5곳에 5000만원까지 국비지원 -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전국 지방자치 단체를 대상으로 올 8월 열릴 '2011년 나라꽃 무궁화 축제'개최지를 내달 11일까지 공모한다. 공모에서 선정된 지자체에는 국가 예산으로 축제 개최 비용이 지원된다.

산림청은 신청 마감 후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를 거쳐 2월 28일 최종 대상지 3~5개를 발표할 계획이다. 지원규모는 1개 도시별 2000만~ 5000만원이다.

개최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축제 세부 계획 및 개최 필요성 설명 등이 포함된 축제계획서를 산림청에 제출하면 된다.

무궁화 개화시기를 고려해 광복절 전후인 8월 중에 실시되는 나라꽃 무궁화 축제는 지난 1991년 무궁화 큰잔치라는 이름으로 제1회 행사를 시작한 이후 2006년 제16회 때부터 지금의 명칭으로 바뀌어 해마다 열리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축제의 지방 확산과 정착,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개최도시를 선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처음 실시된 공모에서는 독립기념관 및 부산시, 인천시, 홍천군, 진도군이 선정돼 이들 도시가 번갈아 가며 축제를 열었다. **산림**

문의 :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박영환 사무관(042-481-4227)

# 하영효 차장, 세계산림의 해 출범식 참석차 방미

- 1일 출국...수석대표로 UN서 한국녹화성공 설명·UNCCD총회 홍보 -



하영효 산림청 차장은 내달 3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2011 세계산림의 해' 출범식에 참석하기 위해 대한민국 대표단을 이끌고 1일 미국을 방문한다. 방미 대표단에는 임은호 산림청 국제협력과장 등 6명이 함께 참여한다.

산림의 해 출범식은 지난 2006년 UN 총회가 채택한 '2011년 세계산림의 해' 결정문에 따라 벌어지는 행사로 24일부터 이미 시작된 유엔산림포럼(UNFF, UN Forum on Forests) 제9차 회의를 겸해 열린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193개 UN회원국이 참가한다.

한국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하 차장은 출범식에 뒤이어 내달 4일 열리는 각국 대표단 고위급 회의에도 참석해 한국의 녹화성공 사례를 발표하고 사막화, 토지황폐화, 가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변 저개발 국가에 대한 지원도 약속할 예정이다. 또 오는 10월 경남 창원에서 개최되는 제10차 유엔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총회 준비상황을 설명하고 성공적 개최를 위한 홍보에도 적극 나선 계획이다. **산림**

문의 : 산림청 국제협력과 이원희 사무관(042-481-8788)

# 손금보듯 등산정보 볼 수 있는 앱서비스 개시

- 100산 지리정보안내 '숲에on'...위성으로 산행·날씨정보 실시간으로 받아 -



지난해 스마트폰용 100대 명산 안내 어플리케이션을 선보여 국민의 호응을 받았던 산림청(청장 정광수)이 이번에는 이보다 훨씬 편리하고 상세한 전국 주요 100개 산 등산로 안내 어플리케이션인 '숲에on 등산로 안내'와 지리산둘레길과 제주도 사려니숲길을 안내하는 '숲에on 숲길 안내'를 동시에 내놓았다.

지난달 20일부터 본격 서비스를 개시한 이들 앱은 지난해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전담하는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산림청이 지난해 7월부터 야심적으로 추진해 온 '작품'이다.


'숲에on 등산로 안내' 앱의 가장 큰 특징은 전국 주요 100개산을 그야말로 손금 보듯이 알 수 있다는 점이다. 지도상 등산로에서 본인의 위치를 알려주는 서비스는 기본이다. 산 지도는 산림청이 자체 축적한 자료와 숲길조사원이 조사한 지리 정보를 바탕으로 국토지리정보원 지형도를 가공해 보여준다. 또 구글 위성지도를 함께 비교해 볼 수 있고 스마트폰의 나침반 기능을 적용해 본인의 진행방향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기상청 날씨정보와도 연계해 해당 지역 날씨정보와 기상특보를 안내하며 증강현실 기법을 도입해

주요 지점의 산행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움직이는 주머니 속 등산지도가 탄생한 셈이다.

스마트폰의 개인화 기능도 강화했다. 산행 중 느낀 본인의 감정을 사진과 함께 글로 남길 수 있다. 각 개인이 등록한 정보는 위치 정보와 함께 표시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다. 산행 중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앱에 탑재된 '조난시 대처방법'을 이용하면 산악구조 요청을 손쉽게 할 수 있다.

'숲에on 숲길 안내'는 KBS 예능프로그램 '1박2일'로 잘 알려진 지리산둘레길과 제주도 한라산 종턱 사려니숲길을 안내해 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 길찾기가 다소 어려운 숲길을 여행하는 일반인에게 본인 위치를 알려주고 화장실 등 각종 편의시설을 안내하며 인근 마을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도 신경을 썼다.

고기연 산림청 산림휴양문화과장은 "등산 인구가 늘어나면서 각종 산악사고도 증가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으로 산 속 본인의 위치를 확인하며 산행을 한다면 각종 산악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100대 산 정보서비스가 생활밀착형서비스로 국민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서비스는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스마트폰으로 산 정보를 다운로드한 후 등산을 하는 동안 위치정보를 수신해 활용하면 된다. 서비스앱의 공식 이름은 "숲에on 등산로 안내", "숲에on 숲길 안내"로 SK텔레콤이 운영하는 T-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문 의 : 산림청 산림휴양문화과 변상우 주무관(042-481-4217)

# 참나무시들음병 맞춤형 방제 본격 시작

- 소구역모두베기 위주로 매년10% 감소목표...7만여그루 베어 산업용으로 활용 -



올해 참나무시들음병 발생량을 지난해보다 10%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운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25일부터 참나무시들음병이 발생한 전국의 리·동 단위별로 소구역모두베기를 위주로 한 맞춤형 복합방제 사업을 본격 개시한다. 방제 사업에는 국비 33억원이 투입된다.

산림청은 참나무시들음병의 근원적 방제를 위해 매개충(광릉긴나무좀)이 우화하기 전인 4월말까지 피해 참나무를 베어내 해충도 방제하고 산물도 이용하는 소구역모두베기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역별로는 여건에 따라 끈끈이 롤트랩 설치 방식도 병행한다.

올해 소구역모두베기 작업에서는 피해목의 40% 이상인 7만2000그루(9000m<sup>3</sup>)를 베어내 이물 숲·칩·톱밥 등 산업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산주들에게는 m<sup>2</sup>당 평균 2만원의 벌채비용이 지원된다.

지난해 참나무시들음병 피해목은 18만1000그루로 2009년의 22만1000그루에 비해서는 18% 감소했지만 발생 범위가 전국적이어서 안심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산림청은 이에 따라 참나무시들음병 발생지역에 대해 리·동 단위별 특별관리체계를 구축해 발생에서부터 방제,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산림**

문의 : 산림청 산림병해충과 김남철 사무관(042-481-4269)

# "출생의 기쁨을 영원히 기억할 나무를 심으세요"

- 식목일에 미취학아동가족 '탄생목 심기'...이름표달아 직접 가꿀수있어 -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며 출생의 기쁨을 온 가족이 기억할 수 있도록 나무를 심는 '탄생목 심기' 행사가 올 식목일을 전후해 벌어진다. 이 행사는 산림청이 추진하는 생애주기별 산림 복지 체계 구축계획의 일환으로 치러진다.

이번 행사는 제66회 식목일과 연계해 4월 5일 전후로 경기 남양주 수동면, 강원 양양군 현북면, 경북 칠곡군 석적읍, 충북 청주시 용정동, 전남 순천시 낙안면 등 전국 국유림 8곳에서 출생 2년 이상의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선착순 참가 신청을 받아 무료로 추진된다. 참가신청 방법 등은 각 지방산림청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탄생목으로는 지역별로 성장이 우수한 나무를 선정할 계획이다. 탄생목을 심는 현장에서는 기념 촬영과 숲해설·숲체험 및 견기, 명상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산림문화 체험행사도 함께 열린다. 또 가족들이 심은 나무에는 유아의 이름표를 달도록 하고 나무를 심은 곳에 안내판을 세워 가족들이 언제든지 찾아와 직접 심은 나무를 가꿀 수 있게 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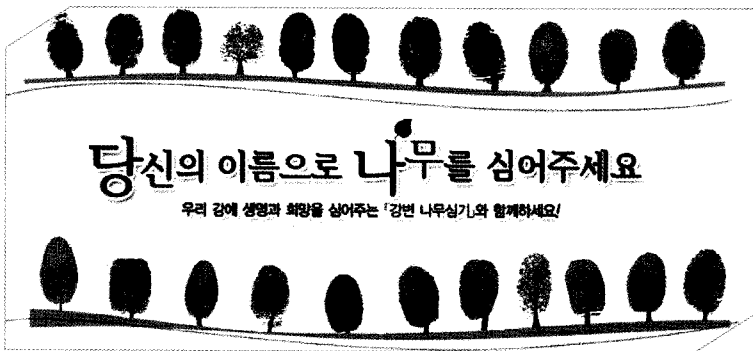
산림청은 이번 행사와는 별개로 4대강 유역에서 '희망의 숲' 조성 사업을 할 때도 탄생목 심기를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

문 의 : 산림청 산림휴양문화과 김평기 주무관(042-481-4216)



# "당신의 이름으로 나무를 심어주세요" 온 국민이 함께 만드는 '우리 강, 우리 숲'

- 산림청, 봄철나무심기 착수...2만ha 3800만 그루 심는다 -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본격적인 봄철 나무심기 기간을 맞아 21부터 4월 30일까지 전국 산림과 하천변 그리고 자투리 땅 등에 서울 남산 면적의 67배에 달하는 2만ha의

공간에 '4대강 희망의 숲' 조성 행사 등을 통해 38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

올해는 UN이 정한 '세계 산림의 해'이면서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당사국 총회가 10월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등 지구 환경 문제에 있어 산림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다.

산림청은 특히 올해 식목일(4월 5일)을 전후해 국민이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직접 나무를 심어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는 '4대강 희망의 숲 나무심기' 행사를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한다.

'4대강 희망의 숲' 조성 대상지는 주민 접근성이 좋고 주변 경관거점(36경)과 조화를 이루는 전국 38곳(한강4, 금강8, 영산강8, 낙동강18)으로 전체 면적은 58만7534㎡다.

이곳에 심겨지는 나무는 해당 지자체별로 수변 생존력, 수리적 안전성 등을 고려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선정했다. 큰나무 4864그루, 작은나무 3만7235그루와 초화류 등이 식재될 예정이다.

'4대강 희망의 숲' 조성은 22일부터 3월 20일까지 국민 신청을 받은 뒤 3월 말부터 한달여간 전국 38곳에서 동시에 진행될 계획이다.

'희망의 숲' 나무심기는 개인(출향인사 등), 기업, 단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신청기간 동안 '희망의 숲'대표 홈페이지(www.4rivers.go.kr/tree) 및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우편·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방법은 해당 지역의 식재 수종 범위 내에서 개인이나 단체가 소유한 나무를 직접 가져 와서 심으면 되고 나무가 없으면 산림조합이 운영하는 나무시장(130곳)에서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입해 심을 수 있다.

산림청은 참가자들이 이 행사를 통해 애향심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참가 신청서 접수 때 '숲' 명칭도 공모한다. 최종 선정된 숲 명칭과 의미에 대한 설명은 알림표지판에 써서 조성구간에 설치할 계획이다.

식재된 나무에는 참가자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써넣은 개인·가족·단체 명의의 개별 표찰을 달고 참가자들의 추억과 사연은 타임캡슐에 담아 20년간 보관할 예정이다.

이돈구 산림청장은 "국민이 직접 나무를 심고 자신들의 희망을 담은 수변생태공간을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준다는 취지로 이번 행사 이름을 '4대강 희망의 숲 조성'으로 정했다"며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조성되는 강변 숲은 자연과 지역의 정서가 어우러지는 테마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림**

문 의 : 산림청 산림자원과 사무관 조준규(042-481-4185)